

우리는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말씀: 렘1:1-10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행20:27).

지금까지 4년 동안 성경의 여러 주제를 다루었음. 잘못하면 목사가 선호하는 주제만 다루게 됨.

이제는 한 책을 정해 전체 내용을 강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필요 시 다른 것도 설교할 것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모세, 다니엘, 바울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반역하는 자들, 불신자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서는 21세기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 제목

배경(1-3)

- A. 이름: 나면서부터 제사장, 예루살렘 북쪽 5km 베냐민 땅 아나돗에 거함.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를 뜻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서 대언자들 가운데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16:2).
- B. 기록 시기: 주전 590년경, 성격: 역사, 대언, 자서전, 기간: 약 41년, 수신자: 유다 백성
- C. 주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의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에 의로운 가치를 통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 D.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통해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 E. 배경: 솔로몬의 죽음과 왕국 분열 이후에 유다 왕국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종교적 타락과 개혁으로 이어졌다. 요시아(8세에 왕이 되어 31세에 죽음)는 마지막으로 선정을 베푼 왕이었으며 그는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마지막 개혁을 이룬다. 하지만 31세에 파라오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다(대하35:20-27).
 1.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3달 통치, 파라오 느고), 그의 형제 여호아김(11년, 느부갓네살),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아진(3달, 느부갓네살), 요아스의 아들 시드기야(마지막 왕, 11년, 느부갓네살), 요시아 이후의 유다 역사는 계속되는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역사이며 결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BC586년). 1차 BC 606, 2차 597, 3차 586
 2. 대언자 예레미야는 배도와 타락의 시기에 활동하였다.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이집트, 동쪽의 바빌론,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600년경에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된 뒤 붕괴되었고 바빌론이 그 당시 문명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두 파가 다투었다. 이집트 지지자들은 이집트가 세계의 지배자로 재등장하고 있으니 이집트를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바빌론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민족이 생존하는 대가로 바빌론에 항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통치 제13년에 활동을 시작하였고(BC 628) 바빌론 포로 초기까지 계속해서 활동하였으며 이집트에서 생을 마쳤다(BC 586).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열강들 가운데 놓임,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1945년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뉘어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는 상황, 극도의 이념 분열

윤리와 도덕의 실종: 극악무도한 범죄, 강간, 살인, 아동 성폭력(나주 7살 어린이), ‘묻지 마 범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고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하다가 이제는 900만으로 줄

계속해서 천주교는 수가 늘고 기독교는 수가 준다.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회의 세속화(프로그램, 은사주의, 기복주의, 음악, 탐욕, 세습)

1980년대 이후의 풍요로 인해 성경 말씀을 찾지 않는 세대, 설교 대신 프로그램

유다의 배도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말을 전달할 대언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4-5)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출생하기도 전에 그를 알고 빚고 구분하여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움

대언자: 기존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된 단어, prophet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닌 대언자이다(7, 9절).

구약시대 아벨부터 대언자, 신약시대에도 초기에 대언자들이 있었다. 고전14장도 대언

이제는 더 이상 직통으로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는 없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의미의 대언자만 있을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대언자라 할 수 있다.

1.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담과 이브 창조(창2:7), 그 이후에는 출산되지만 여전히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 숨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요일5:12).

2. 생명은 모태에서 수태될 때부터 시작된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낙태율 미혼 기혼 합쳐서 1000명당 31건

3. 하나님은 자신의 미리 아심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신다(롬8:29-30). 예지, 예정(선택), 부르심, 칭의, 영화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은 성경적이 아니다.

4. 신구약의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으로, 사역으로, 지역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청소, 식사, 음악, 교제/섬김, 교사, 목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

대언자의 망설임(6-9)

1. 말을 못한다. 경험이 없다(6)

대언자의 직무는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모세 출4:10 말에 능하지 못하다.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

마틴 로이드 존즈: 대부분의 훌륭한 목사들의 공통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

신학원 개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벧전5:5).

3.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9절, 출4:11-12).

예레미야에게도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심(7).

4.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 혹은 수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삼상14:6).

이 말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뇌할 때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대언자의 사역(7, 9-10, 11-16)

대언자의 사역은 평탄한 사역이 아니다. 위험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해야 할 일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1) 악한 것은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해야 한다. (2) 좋은 것은 세우고 심어야 한다.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가정, 바른 사회(통일)

하나님은 아몬드나무 막대기와 끊는 가마솥을 통해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 주심(11-16).

아몬드 나무: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깨어나는 나무,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보여 줌

우리가 선포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행17:30-31).

하나님의 약속(8, 18-19)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8).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18-19).

마28:18-20

결론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 기독교의 타락, 불신, 불순종, 도덕 불감증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의 대언자로 선택하셨다.

말씀으로 부술 것을 부수고 세울 것을 세워야 한다(9-10).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행한다.